

# 경제가사의 형성과 문학적 특질

김아연\*

## <차 례>

1. 머리말
2. 경제가사의 형성과 발전
3. 경제가사의 문학적 특질
4. 맺음말

## <국문초록>

인간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경제(經濟)라고 한다. 경제가 인간의 행위라는 점에서 경제는 언어 행위의 화제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본고는 경제를 소재로 다루는 일련의 가사 작품을 경제가사(經濟歌辭)로 규정하고, 가사문학의 새로운 하위 유형으로 경제가사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경제가사를 가사문학의 하위 유형으로 정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가사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문학적 특질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고는 가사를 역사적 장르로 간주하고, 가사문학의 전통 안에서 경제가사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경제가사는 17세기에 '빈곤'이라는 소재에서 출발하였음을 규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17세기 경제가사의 작자가 '빈곤'도 자기의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18, 19세기 경제가사는 교훈가사의 교훈성을 수렴하여 다층적 독자에게 올바른 경제 행위의 지침을 알려주는 사회적 효용성을 발휘하였음을 살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경제가사는 근대적 인쇄 매체인 신문에 게재되어 신문의 논설 형식과 가사의 울

\* 전남대학교

문 형식이 결합한 시평가사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자강 운동 단체가 주장한 경제 분야의 자강과 개혁론을 담아냈으며, 백성을 능탈하는 반민(反民) 세력을 비판하였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경제가사의 문학적 특질은 두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가사는 화자의 체험, 경제적 현상, 경제적 사건 및 행동 지침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때 경제가사는 메시지의 내용을 찬찬하게 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을 지향하고 열거법, 연쇄법과 같은 표현 기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경제가사의 기록성은 서술을 확장시키고 화자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살폈다. 둘째, 경제가사의 작자는 가치 있는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식이 강함을 분석하였다. 경제가사의 작자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담화 방식,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어조, 액자 구조 등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였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작자가 전략적 서술방식을 통해 경제 담론을 형성하고, 독자로 하여금 올바른 경제 행위를 생활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핵심어** 경제가사, 소재, 빈곤, 기록성, 교훈, 경제 담론

## 1. 머리말

가사는 조선후기 사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변모 양상을 보이게 된다. 우선 사대부 중심이었던 가사의 담당층과 향유층이 조선후기에 사대부가의 규방 및 서민 일반에게까지 확대, 대중화된 점이 두드러진다. 가사의 담당층과 향유층의 확대는 가사의 소재, 모티프는 물론이거니와 서술의 전개 장치, 담화 방식 등의 동태적 변모를 이끌기도 하였다.

본고는 조선후기 가사의 이러한 동태적 변화 가운데 특히 ‘소재의 확대’를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가사문학의 외연 확장은 바로 소재의 확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선상에서 본고는 조선전기 가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소재 가운데 ‘경제’에 관한 작품을 고찰하기로 한다.

경제는 인간의 행위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인문학 측면에서 경제는 언어 행위의 화제로 인식될 수 있고, 가사 텍스트의 소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고는 경제를 소재로 하는 일련의 가사 작품을 ‘경제가사(經濟歌辭)’로 규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본고는 가사를 역사적 장르로 간주하고, 경제가사의 형성, 발전 및 문학적 특질을 규명할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가사문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존재한 경제가사의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고는 논의를 위해 박인로(朴仁老)의 <누항사(陋巷詞)>, 정훈(鄭勳)의 <탄궁가(嘆窮歌)>, <<초당문답가(草堂問答歌)>>의 <치산편(治産篇)> · <우부가(愚夫歌)> · <용부가(庸婦歌)>, <계녀가(誠女歌)>, <덴동어미화전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의 시평가사(時評歌辭)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 2. 경제가사의 형성과 발전

일반적으로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경제(經濟)’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개념의 경제가 가사의 소재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7세기로 소급할 수 있다. 15, 16세기 가사의 담당자이자 향유층이었던 사대부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기반으로 입신양명을 위해 학업에 정진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사대부는 경제를 가사의 소재로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17세기

에 접어들면서 가사는 경험적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을 재현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이때부터 경제를 가사의 소재로 서서히 다루기 시작하였다.<sup>1)</sup>

경제가사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 배경은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의 발발에서 찾을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산천, 농토가 황폐해지고, 노동력에 해당하는 인구, 농우의 수가 급감하였다. 곧 임병양란은 조선의 생산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가사의 담당층이자 향유층이었던 사대부는 전란 이후에 발생한 ‘빈곤’이라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빈곤’과 마주한 가운데 ‘빈곤’을 가사의 소재로 활용하였고, ‘빈곤’한 현실을 텍스트에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 작품으로 박인로의 <누항사>, 정훈의 <탄궁가>를 들 수 있다.

<누항사>는 박인로가 임진왜란에 참전한 이후 일상으로 돌아와서 창작한 작품이다. <누항사>의 시적 화자는 “설 데인 熟冷애 빈 비 석”이는 처지에 처해 있을 정도로 빈곤하다. 시적 화자는 주인과 종의 분수를 잊어버린 ‘일노(一奴)’를 대신하여 춘경에 직접 참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가시 영권 묵은 밭’을 가는 데 필요한 농우를 소유하지 못해 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시적 화자는 “쇼흔 적 듀마흐고 업섬이 흐는 (이웃의) 말삼”을 곧이듣고 이웃에 농우를 빌리러 갔다. 그러나 이웃이 농우를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자, 시적 화자는 춘경을 포기하였다. 그러한 순간에도 시적 화자는 “넌 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고 언급함으로써, ‘빈천’은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시적 화자는 “簞食瓢飲을 이도 못히 너기로라”고 언급함으로써,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시적 화자는 “太平天下에 忠孝를 일을 삼아 和兄弟 信

1) 이 장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몇몇의 단락은 본고의 목적인 경제가사의 형성과 발전을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줄고인 「《대한매일신보》 소재 경제가사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朋友 외다 흐리 님 이시리”라고 언술함으로써, ‘빈곤’함 속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충효제신(忠孝悌信)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탄궁가>는 정훈이 병자호란을 경험한 뒤에 빈곤한 현실을 담아낸 작품이다. <탄궁가>의 시적 화자는 “三旬 九食을 엇거나 못엇거나 十年 一冠을 쓰거나 못쓰거나 顏瓢屢空인들 날그치 뷔여시며 原憲 艱難인들 날그치 已甚홀가”라고 함으로써, 안회(顔回)나 원헌(原憲)의 가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삼순구식이 어렵고 십 년 동안 한 갓만 쓸 정도로 지독하게 가난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적 화자는 ‘한아한 食口’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올벼, 기장, 피, 조, 팔을 심었지다. 그렇지만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인해 올벼 한 발만 수확하였다. 때문에 시적 화자는 ‘환자’, ‘徭役’, ‘貢賦’를 대처하는 데 걱정하고 있다. ‘환자’, ‘徭役’, ‘貢賦’는 시적 화자의 소득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원수처럼 여기는 ‘궁귀(窮鬼)’를 내쫓고자 한다. 하지만 시적 화자는 “하늘삼긴 이내窮을 혈마흔들 어이흐리 貧賤도 내分이여니 설워 므슴흐리”라고 언술함으로써, 결국 빈천함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면서 가난을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누항사>, <탄궁가>와 같은 17세기 경제가사는 ‘빈곤’한 현실에 체념하는 동시에, ‘빈곤’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빈곤’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는 것은, ‘안빈낙도(安貧樂道)’ 또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을 강조하는 15, 16세기 강호가사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빈낙도 또는 안분지족은 사대부가 중요시 여기는 미덕의 하나이기 때문에, 17세기 경제가사에 도의적(道義的)으로 수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누항사>는 작품의 말미에서 ‘忠孝’, ‘和兄弟’, ‘信朋友’ 등 인간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술하였다. 이 대목에서 17세기 경제가사에 교술성 혹은 교훈성이 가미되었고, 17세기 경제가사가 16세기부터 교훈가사(敎訓歌辭)를 창작하였던 가사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교훈가사에는 가치 있는 경험,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작자의 의

도가 내재되어 있는데<sup>2)</sup>, 17세기 경제가사에서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경험, 깨달음은 인간이 생활상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 덕목이었다. 그렇지만 윤리 덕목만으로는 ‘빈곤’을 타개할 수 없으므로, <누항사>에서 윤리 덕목을 강조하는 대목은 사대부 작자층의 시대착오적인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경제가사의 소재로 등장한 ‘빈곤’은, 18, 19세기 경제가사가 당대의 경제 현실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데 단초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18, 19세기 경제가사는 ‘빈곤’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정치적·사회적인 배경으로 향촌 사족의 증가와 분화를 제시할 수 있고, 경제적인 배경으로 상품 화폐 경제를 꼽을 수 있다.

조선후기 향촌 사족은 세거하던 토착 사족,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낙향 사족, 피지배 계층에서 신분 상승한 편입 사족 등 대체로 세 부류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편입 사족은 부를 축적한 중인, 서얼, 농민 가운데 17, 18세기에 있었던 정부의 납속책, 공명첩 발행, 농업 기술의 발달,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사족으로 신분 상승하였던 부류이다. 그런데 정작 토착 사족과 낙향 사족은 사족 계층의 증가로 지배 계층으로서의 권위와 희소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토착 사족은 17세기 말에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입각하여 문중을 조직하고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낙향 사족, 편입 사족에게로 뻗어나갔을 것으로 짐작된다.<sup>3)</sup>

향촌 사족은 가족, 가문의 번영을 위해 ‘치산(治山)’을 중요하게 여겼다. 향촌 사회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가족, 가문의 구성원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 가문이 해체의 위기에 놓일

2) 조규익, 「교훈의 장르론적 의미와 교훈가사」,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334쪽.

3) 조선후기 향촌 사족의 증가와 분화에 대한 내용은 줄고인 「<<초당문답가>>의 담론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5쪽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당문답가》의 <치산편>이나 <계녀가>는 치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초당문답가》의 <치산편>과 <계녀가>는 치산 담론을 담지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치산 담론은 17세기 경제가사에 수용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치산편>은 농민, 부녀자, 사대부를 대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치산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첫째, <치산편>은 농민에게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농지 개간, 시비법, 이모작, 이양법 및 상품 작품의 재배를 제시하고, 이에 앞서 근면한 자세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치산편>은 부녀자에게 잠농에 참여하고 생산물인 명주를 팔아 경제적 이득을 남겨 가계에 보탬이 될 것을 역설하고, 근면, 검소를 실천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계녀가>에서 부녀자에게 전달하는 치산법과 어느 정도 상통한다. 셋째, <치산편>은 사대부에게 금전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 부질없이 이사하지 말기, 절용하는 즐거움을 찾기, 노복 다스리기 및 지역 공동체에 선덕을 베풀기 등을 제시하였다.

상품 화폐 경제는 상평통보(常平通寶)가 1678년(숙종 4)에 유통되어 명실상부 화폐로 기능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18세기에는 쌀, 배 등의 현물 화폐, 은화 및 상평통보가 통용되면서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 상품과 화폐의 교환으로 대체되었다. 곧 화폐는 상품의 가치 척도가 되었고, 유통 구조는 물물 교환에서 물품의 판매/구매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농민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높이거나, 농촌을 떠나 소상공업자, 광산 노동자, 수공업 노동자, 품팔이꾼 및 도시 빈민으로 탈바꿈하기도 하였다. 한편, 상품 화폐 경제의 폐단으로 고리대가 성행하기도 하였고, 물신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소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상품 화폐 경제에서 배태된 삶의 양상은 18, 19세기 경제가사에 다채롭게 수용되었다. 《초당문답가》의 <우부가>나 <덴동어미화전가>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 작품이다. <우부가>는 사치, 낭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고리대를 하는 개똥이를 부정적인 인물

을 등장시킴으로써, 상품 화폐 경제의 폐단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덴동어미화전가>는 중인 출신이었던 덴동어미가 노동에 참여함에도 생산물을 획득하지 못하는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형상화함으로써, 하층민의 애환을 곡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18, 19세기 경제 현상, 경제 사건을 다룬 가사는 당대의 경제 현실을 사실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사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 다채로운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17세기 경제가사에서 사대부 계층이 언급했던 ‘빈곤’에서 탈피하여, 각 계층 또는 개별 인간을 둘러싼 경제 현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작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경제가사의 이러한 변화는 가사의 담당층, 향유층이 사대부 계층에서 부녀자 계층, 서민 계층으로 확대되었던 문학적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18, 19세기 경제가사는 바람직한 경제 행위의 중요성과 행동 지침을 자상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때 작자는 설득하는 어조를 활용하여 독자를 감화시키고 독자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였거나, 부정적인 인물을 텍스트에 등장시켜 부정적인 인물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부정적인 인물로 하여금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주체로 상정하였다. 곧 18, 19세기 경제가사의 작자는 어조나 등장인물을 서술 전략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17세기 경제가사에서 볼 수 없는 담화 방식, 서술의 전개 장치이다. 또한 18, 19세기 경제가사에서 작자가 발화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행동 지침은 가사의 교술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 경제가사에서 인간의 덕목을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 대안은 대중 독자에게 전달되는 경제 담론인 것이다.

18, 19세기 경제가사의 소재 범위는 개인 경제, 가정 경제, 향촌 경제에 이르렀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서 경제가사의 소재는 개인 경제, 가정 경제, 기업 경제, 국가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 층위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 경제가사 소재의 범위 확대는 당대의 역사적 정황과



관련 있다. 「조일 수호 조규」(1876)를 계기로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편입됨에 따라, 조선의 경제적 · 정치적 자주권은 열강으로부터 위협 받았다. 또한 조선이 붕괴되고 근대 전환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갔다. 이처럼 내우외환이 극심했던 이 시기에, 경제 문제는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국가의 생존과도 맞닿아 있었다. 이에 따라 자강, 개혁론을 주창하는 《태국신문》, 《황성신문》 및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 매체들은 당대의 경제 문제를 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경제가사를 게재하였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경제가사는 신문 매체에 시평가사의 형태로 수록되었다. 신문 매체에 수록된 경제가사는 가사의 율문 형식에 당대의 경제 현상이나 경제적 사건을 평이하게 논평하였다. 경제가사는 논평을 통해 사실성을 담보하고 있고, 경제 현실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을 대중 독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때 경제가사의 작자는 독자를 경제 담론을 실천해야 하는 담론의 객체이자 담론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독자의 행동과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시평가사를 예로 들면, 실업 교육을 강조하는 <안목초신(眼目初新)>(1908년 7월 3일) · <농담야설(農談野說)>(1908년 8월 12일) · <시스평론>(1910년 2월 6일), 제조업을 통한 국부 증강을 강조하는 <절처봉생(絶處逢生)>(1909년 2월 10일) · <공업계서광(工業界曙光)>(1909년 7월 17일), 실업계의 근면을 역설하는 <병중의 말질(病中の未疾)>(1908년 10월 8일), 사치의 억제를 당부하는 <是何人種(시하인종)>(1909년 2월 25일) · <경제오해(經濟誤解)>(1908년 8월 30일) · <양계동맹(兩戒同盟)>(1909년 5월 25일)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당대의 경제가사가 교술성을 포용하고 있는 18, 19세기 경제가사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 말, 20세기 초 경제가사는 시사(時事)를 비판하는 신문 논설의 기능을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와 일본인의 경제 침략, 일진회의 횡포와 역둔토 수탈, 관리의 민재 누탈 등을 비판하였다. 이 시기의 경

제가사는 일제, 일본인, 일진회, 부정 관리 등 반민(反民) 세력의 횡포에서 기인한 백성들의 참상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반민 세력에 대한 반감과 동포에 대한 측은지심이 고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시평가사를 예로 들면, 탐관오리의 늑탈을 다룬 <책적괴(責賊魁)>(1908년 12월 13일), 일제의 축우 수출 금지 처분을 다룬 <금수회의(禽獸會議)>(1909년 6월 26일) · <마술세계(魔術世界)>(1909년 10월 14일), 통감부의 어업법 제정으로 제주도민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린 <장소일성(長嘯一聲)>(1909년 10월 5일) · <추필일탄(抽筆一歎)>(1909년 10월 16일), 시장세 반대 운동을 다룬 <시스평론>(1910년 1월 22일) · <시스평론>(1910년 2월 3일)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현실비평가사(現實批判歌辭)의 맥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 경제가사는 18, 19세기 경제가사, 19세기 현실비평가사의 맥을 이어가면서 신문 매체에 수록되어 경제 문제를 공적 담론의 차원에서 대중 독자와 공유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경제가사는 인쇄술을 활용한 이권 수호 운동으로서 당대의 경제 문제를 여론화하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 3. 경제가사의 문학적 특질

경제가사의 문학적 특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제가사는 화자의 체험, 경제적 현상, 경제적 사건 및 행동 지침 등을 상술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때 경제가사는 메시지의 내용을 찬찬하게 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을 지향하고 열거법, 연쇄법과 같은 표현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경제가사의 이러한 서술 전략은 경제가사의 기록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곧 경제가사의 기록성은 가사의 ‘교술성’이라는 문학적 특질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먼저, 경제가사의 구체적인

기술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누항사>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 ① 쇼흔적 듀마흐고 엄섬이 흐느말삼  
親切호라 너긴집의 달업슨 황혼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 ② 年年에 이러흐기 苟且흔줄 알건만논  
쇼업슨 궁가에 혜염만하 왓삽노라
- ③ 다만 어제밤의 거넨집 저사람이  
목불근 수기雉을 玉脂泣게 꾸어니고  
간이근 三亥酒을 醉도록 勸흐거든  
이러흐 은혜를 어이아니 갑흘넨고  
來日로 주마흐고 大言約 ㅎ야커든  
失約이 未便흐니 사설이 어려왜라
- ④ 현면덕 수기스고 측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風采저근 形容애 기즈칠 썬이로다  
蝸室에 드리간들 잠이와사 누어시라  
北窓을 비겨안자 식비를 기다리니  
無情흔 戴勝은 이너恨을 도우는다  
終朝 惆悵흐며 먼들흘 바라보니
- ⑤ 世情모른 한숨은 그칠줄을 모르는다  
아직은 저소위는 벗보님도 도홀세고  
가시영권 목은밭도 容易케 갈련마는  
虛堂 半壁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두자

<陋巷詞>의 일부4)

위의 인용문은 <누항사>에서 작자가 이웃에게 소를 빌리러 갔던 일화를 보여주고 있다. ①~⑤는 그 일화의 서사 구조(sequence)를 재구한 것

4) 『蘆溪先生文集』 제3권, 「歌」, <陋巷詞>

이다. '① 작자는 이웃이 영성하게 소 한 마리를 빌려주겠다고 했던 말을 믿음, ② 작자는 구차하지만 이웃에 가서 소를 빌리러 왔다고 말함, ③ 이웃은 어젯밤에 건넌집 사람에게 소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작자에게 소를 빌려주기 어렵다고 말함, ④ 작자는 이웃의 말을 듣고 맥없이 물러났지만 아침이 올 때까지 한탄함, ⑤ 작자는 세태를 한탄하고 춘경을 포기함'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①~③은 작자가 이웃에게 소를 빌리러 간 경위와 결과를 제시하고, ④~⑤는 소를 빌리지 못한 데서 발로된 작자의 한탄과 춘경을 포기하기로 한 작자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누항사>에서 작자의 경험, 경험에서 발현되는 작자의 감정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로써 작자는 자신이 소를 빌리러 갔으나 빌리지 못한 장면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고, 소를 빌려주지 않는 이웃의 야박한 태도에 한탄하는 작자의 심정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가사가 열거법을 활용한 예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초당문답가>>에 수록된 <치산편>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金동곳 銀빈여와 銀粧刀 玉指環은  
 니너몸의 군거시요 먹도입도 못흐느니  
 이것저것 흐지말고 그돈들려 장만흐면  
 豆太나는 牟田이요 거름맞는 송아지라  
 (중략)

重大흔 器物들은 重價주고 스지마쇼  
 沙器그릇 닙슈짜락 무슴飲食 變味흐라  
 슴베것 미명거슬 치위더위 못면홀가  
 군것질도 부질업다 음식스치 못흐리라

<治産篇>의 본사<sup>5)</sup>

위의 인용문은 세간을 늘이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세간을 늘이기 위해서 부너자는 장신구 · 기물 · 의복 · 군것질 등에 사치하지 않고, 이것

5) 정재호, 『주해 초당문답가』, 박이정, 1996, 199쪽.

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모전과 송아지를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치산편>은 나열식으로 기술하여 농업의 생산력과 영리를 높여 세간을 늘일 수 있는 치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검소를 위해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이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독자에게 전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끝으로, 경제가사가 연쇄법을 활용한 예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에서 인용하는 작품은 1906년 1월 20일에 <<신보>>에 게시된 <향로방문의생이라(鄉老訪問醫生이라)(속)>의 일부이다.

…… (상략) ……

농상공학 정치법률 각기학문 즈격디로  
 농민은 농스흐고 상민은 장스하고  
 장식은 제조하며 벼살홀자 벼살하야  
 직업을 직히이면 싱계가 넉넉하야 가급인족 못될손가  
 가급인족 하계드면 국토태민안 못될손가  
 국토태민안 하계드면 국부민강 못될손가  
 국부민강 하계드면 독립국이 못될손가  
 독립국이 되게드면 즈유권리 업슬손가  
 즈유권리 잇게드면 압제를 밧을손가  
 압제를 면케드면 미완  
 <鄉老訪問醫生이라(속)의 일부><sup>6)</sup>

위에서 인용한 <향로방문의생이라>는 사농공상 직업을 지키면 독립국으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를 위해 시적 화자는 ‘사농공상 직업 지키기 → 가급인족 → 국태민안 → 국부민강 → 독립국’과 같은 단계적 논리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서 ‘사농공상 직업 지키기’는 ‘가급인족’, ‘국태민안’, ‘국부민강’ 및 ‘독립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적인 행동 수칙이다. 그리고 ‘사농공상 직업 지키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국’을 이룩하는 데 있다. 독립국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는 곧 국권 수호 의지

6) <<대한매일신보>>, <鄉老訪問醫生이라>, 1906년 1월 20일자 잡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독립국을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급인족’, ‘국태민안’, ‘국부민강’은 가정, 국가의 부를 이룩하고, 부를 근간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경제적 자립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향로방문의생이라>는 연쇄법을 활용하여 독립국이 되기 위한 연속된 행위를 제시하고, 국권 수호 의지가 경제적 자립 의지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내적 욕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경제가사의 작자는 가치 있는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이는 18세기 경제가사가 교훈가사의 교훈성과 결합하면서 나타난 문학적 특질이다. 경제가사가 교훈성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작가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서술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경제가사의 전략적인 서술방식으로 담화 방식,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어조, 액자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담화 방식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7세기 경제가사인 <누항사>, <탄궁가>는 1인칭 화자가 텍스트 전면에서 노출되어 ‘빈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덕목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18세기 이후 경제가사에는 실제 작자와 텍스트에 등장하는 화자가 별개로 존재한다. 실제 작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화자를 텍스트 전면에서 내세우고, 화자가 교훈의 주체가 되어 텍스트 내의 담화를 이끌어갈 것을 의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올바른 경제 행위를 판단하고 경제적 사고, 경제적 인식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초당문답가≫의 <치산편>에서 담화를 주도하는 객 노옹을 제시할 수 있다. 객 노옹은 ≪초당문답가≫의 <백발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족 출신이었으나 젊은 날을 허랑방탕하게 보내 결국에는 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작자는 초당 주인과 주인 소년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 객 노옹을 교훈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텍스트 내에 등장하는 초당 주인과 주인 소년에게 치산 담론을 전달하고 있다. 나아가 작자는 텍스트 밖에 있는 다층적 독자에게도 치산 담론을 알리고 다층적 독자가 생활상에서 치산 담론을 실천하는 주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때 객 노옹의 훈계조는 초당 주인, 주인 소년 및 독자에게 설득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초당문답가》의 작자는 <우부가>, <용부가>를 액자 구조의 형태로 삽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부가>의 곰생원, 경생원, 개똥이, <용부가>의 저부인, 뽕덕어미의 일화를 들어, 그릇된 경제 행위로 수신제가에 실패한 인물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작된 《신보》의 시평가사를 《신보》의 집필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개화가사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sup>7)</sup> 당대의 지식인을 대표하는 집필진은 기자, 편집자, 작가의 역할까지 도맡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론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자신들이 목도한 사회 현실의 부조리를 대중 독자에게 알림으로써 경제 여론을 형성하고,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한국 경제의 자강, 개혁론을 주장하고 독자의 행동, 인식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신보》 집필진은 생소한 신문 논평 형식에 익숙한 가사 형식을 결합한 경제가사를 제작하고, 다층적 독자가 경제 문제를 논하는 시평가사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보》 경제가사의 작자는 다층적 독자가 경제 문제를 노래하거나 읊독하게 하였다. 이로써 경제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한 사고가 다층적 독자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의도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신보》 경제가사는 텍스트 내부와 외부에서 집필진과 대중 독자를 매개하고, 작자는 경제가사를 통해 당대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현실과 일체에 종속된 한국의 경제 현실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곧 《신보》 경제가사는 다층적 독자에게 경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보》 경제가사의 작자는 다층적 독자가 《초당문답가》의 <치산편>처럼 경제 담론의 주체로 발전할 것을 도모하며, 가사 텍스트가 사회적 효용성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겠다.

7) 김학동, 「개회사상과 저항의 한계성」, 『한국 개화기 시가 연구』, 시문학사, 1981, 82쪽; 박을수, 『한국개화기저항시가론』, 아세아문화사, 2001, 87쪽; 김영철, 『한국 개화기 시가 연구』, 새문사, 2004, 81쪽; 김주현, 「사회등가사 저자로서의 신채호」, 『어문학』 제114집, 한국어문학회, 2011, 336쪽.

#### 4. 맺음말

인간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경제라고 한다. 경제가 인간의 행위라는 점에서 경제는 언어 행위의 화제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본고는 경제를 소재로 다루는 일련의 가사 작품을 경제가사로 규정하고, 가사문학의 새로운 하위 유형으로 경제가사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경제가사를 가사문학의 하위 유형으로 정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가사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문학적 특질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고는 가사를 역사적 장르로 간주하고, 가사문학의 전통 안에서 경제가사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경제가사는 17세기에 ‘빈곤’이라는 소재에서 출발하였음을 규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17세기 경제가사의 작자가 ‘빈곤’도 자기의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18, 19세기 경제가사는 교훈가사의 교훈성을 수렴하여 다층적 독자에게 올바른 경제 행위의 지침을 알려주는 사회적 효용성을 발휘하였음을 살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경제가사는 근대적 인쇄 매체인 신문에 수록되어 신문의 논설 형식과 가사의 율문 형식이 결합한 시평가사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자강 운동 단체가 주장한 경제 분야의 자강과 개혁론을 담아냈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경제가사의 문학적 특질은 두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가사는 화자의 체험, 경제적 현상, 경제적 사건 및 행동 지침 등을 상술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때 경제가사는 메시지의 내용을 찬찬하게 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을 지향하고 열거법, 연쇄법과 같은 표현 기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경제가사의 기록성은 서술을 확장시키고 화자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살폈다. 둘째, 경제가사의 작자는 가치 있는 교훈



을 전달하려는 의식이 강함을 분석하였다. 경제가사의 작자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담화 방식,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어조, 액자 구조 등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였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작자가 전략적 서술방식을 통해 경제 담론을 형성하고, 독자로 하여금 올바른 경제 행위를 생활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본고는 가사문학의 하위 유형으로 경제가사를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경제가사는 경제 현실, 경제적 사고를 다루는 가사 작품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고는 17세기~19세기 말 20세기 초 경제가사를 중심으로 경제가사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문학적 특질을 구명하였다. 가사문학의 현대적 수용 관점에서 20세기 초 이후에도 창작되는 규방가사, 2000년부터 가사문학관에서 시행하는 전국 가사 창작 대회와 입상작을 대상으로 경제를 소재로 다룬 작품을 분석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통해 경제가사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문학적 특질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蘆溪先生文集』

『不憂軒集』

《대한매일신보》,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 디지털 복원 원문

(<http://www.kinds.or.kr/>)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117>)

김아연, 「《초당문답가》의 담론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5쪽.

김아연, 「《대한매일신보》 소재 경제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김영철, 『한국 개화기 시가 연구』, 새문사, 2004. 81쪽.

김주현, 「사회등가사 저자로서의 신채호」, 『어문학』 제114집, 한국어문학회, 2011. 336쪽.

김학동, 『개화기시가 연구』, 새문사, 2009. 82쪽.

박을수, 『한국개화기저항시가론』, 아세아문화사, 2001. 87쪽.

이상보, 『증보 17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2001.

정재호, 『주해 초당문답가』, 박이정, 1996.

조규익, 「교훈의 장르론적 의미와 교훈가사」,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334쪽.

<Abstract>

## The formation and literary features of Economy Gasa

Kim, A-yun

People are use of money, resources or service needed to go about their daily lives. Economy has been one of writing materials in literature, because economy is the human behavior. Having consider this, I suggest Economy Gasa a new subtype of Gasa Literature.

I tried to analyz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Economy Gasa.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ly, Economy Gasa began as poverty in the 17th century, and writer considered poverty his fate. Secondly, Economy Gasa accepted the didacticism of Didactic Gasa, Economy Gasa as a guideline which delivered correct the economic acti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irdly, Economy Gasa was got into newspaper media, thus, as the comment poetry on current topics of economy which emphasized strenuous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and criticized sharply Antinational Actor like Korean Empire corrupt officials, Japanese Imperialism, the Japanese people, and Ilchinhoe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 explored literary features of Economy Gasa. Firstly, Economy Gasa aimed at specific writing, and made the use of listing expression techniques and chain expression techniques. Throughout it, I revealed that the recordism of Economy Gasa extended description and maximized a poetic narrator's feelings. Secondly, writers of Economy

Gasa tactically used the way of dialogue, characters, characters tones and frame stories to deliver morals. Thus, writers formed Economy discourse and attracted correct the economic action from readers.

Key words : Economy Gasa, writing material, poverty, the recordism, moral,  
Economy discourse